

“내일이 축복식이군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축복식이에요.”

참아버님과 참어머님께서는  
축복식을 하루 앞두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담과 해와가 말씀대로 잘 자라면  
축복결혼을 해 주시려던 하나님!  
축복결혼을 한 아담과 해와가 자녀를 낳고  
참부모가 되는 모습을 보시려던 하나님!  
참부모의 가정에 영원히 함께하시려던 하나님!”



“그러나 축복결혼을 해 주시기 전에 사탄에게 아들과 딸을  
모두 빼앗기신 하나님! 슬픔 속에 6천 년을 지내신 하나님!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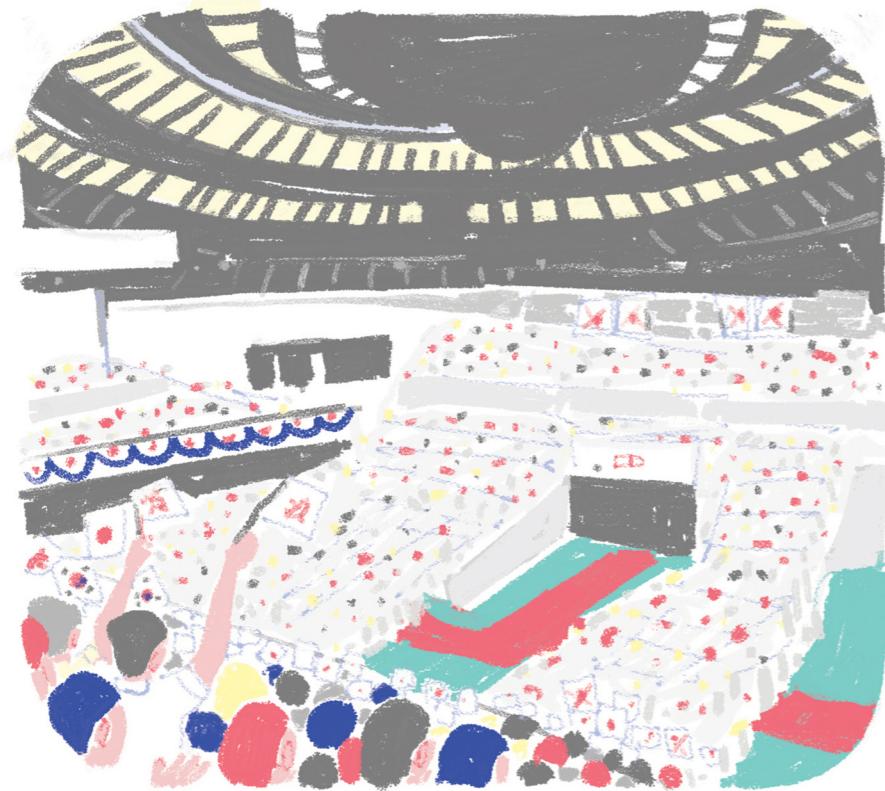


“이제 참부모가 된 저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사탄의 품속에 있던 당신의 아들딸들을 축복결혼으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축복식에 참여한 선남선녀들과 가정들이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세계와 천주 앞에 성혼이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짝짝짝짝짝짝!”

축복식장에 모인 신랑 신부의 가족들과 식구들은  
축하의 박수를 쳤어요.  
참아버님과 함께 주례를 서신 참어머님께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환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참어머님, 오늘은 대학 강연이 있으십니다.”

“그래요, 어서 가지요!”

참어머님께서는 전국에 있는 대학을 직접 다니며  
원리 말씀을 전하셨어요.

대학교 강단에 올라 젊은 대학생들에게 하나님과  
참부모와 원리의 말씀을 당당히 전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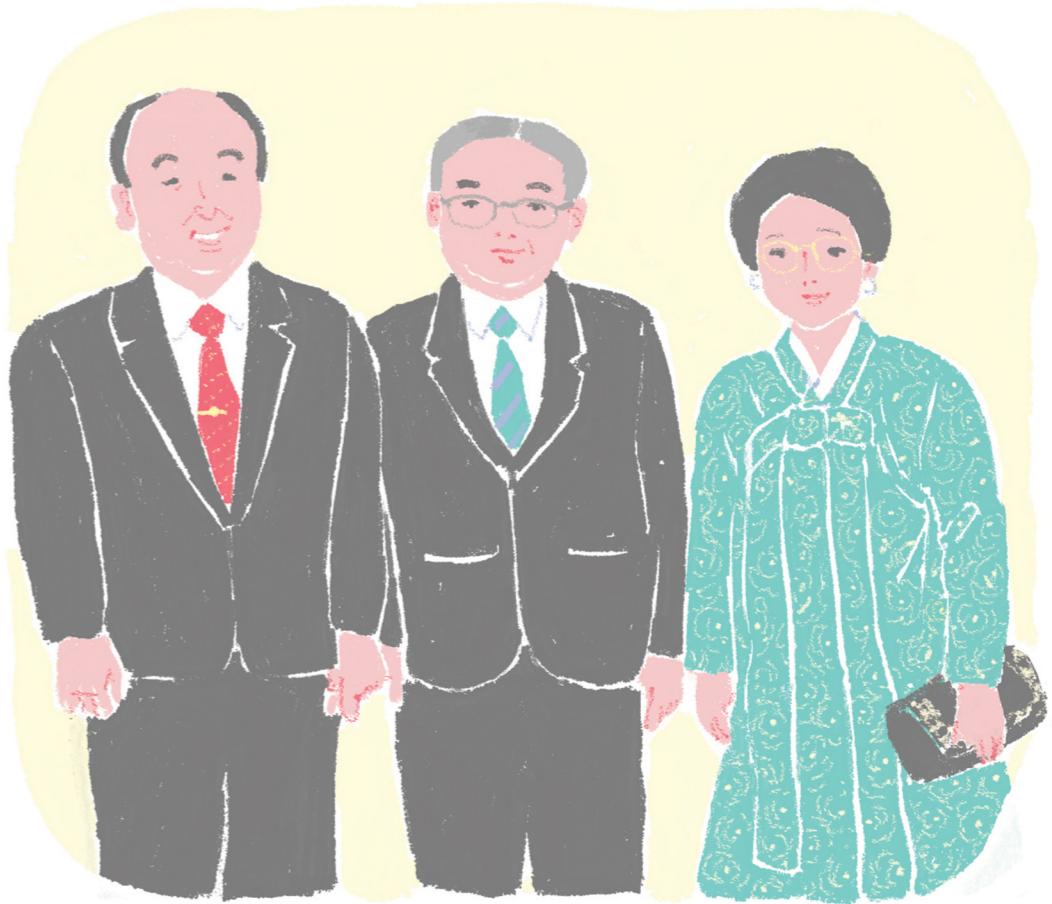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한 가족으로 만들자!”

참아버님과 참어머님께서는 이처럼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음을 거부하는 공산주의  
국가에도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목숨이 위험할 만큼 심각하고 무서운 곳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참어머님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것을  
잘 아시기에 늘 참아버님과 함께하셨어요.



“참아버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사랑해요.”

참아버님께서 93세로 성화하셨어요.

참어머님은 모든 정성을 다해 참아버님의  
천주 성화식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는 식구들을 위로하시며,  
함께 천일국을 이루어 가자고 격려하셨지요.





참어머님께서는 3년 동안 참아버님의 묘소인  
본향원에서 정성을 들이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본향원을 지키면서 기도하셨어요.

“참아버님,  
이제부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편히 쉬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중심한 한 가족의 세상,  
천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